

# 慕齋 金安國의 對日認識\*

손 유 경 \*\*

## <目次>

- |                   |                      |
|-------------------|----------------------|
| I. 서론             | III. 모재의 우호적 대일관의 배경 |
| II. 모재의 우호적 대일 인식 | IV. 결론               |

## <국문 초록>

조선과 일본간의 문화적 교류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로 인한 성과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연구대상이 임진왜란 이후 1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조선통신사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서 조선 전기에 이루어진 대일 교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조선통신사들의 문학작품이 일본에 직접 가서 그곳에서 본 경물, 의복, 풍속으로 창화하고 吟詠한 것인 반면, 임난 전에 지어진 양국 사이의 문화적 교류의 산물들은 조선에 있으면서 일본에 대해 듣거나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지은 것이다. 본고는 중종조에 선위사로 활동했던 모재 김안국의 대일인식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김안국 역시 일본에 직접 방문한 적은 없지만 내빙하는 사신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당시 조선에서 일본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으니, 김안국의 대일인식을 살펴보는 작업은 한 개인의 대일 교류 및 사신과의 교류 활동상을 밝히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김안국은 일본 여러 使僧의 접대를 담당하였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지속적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22-A00081)”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연구원 / curator98@hanmai.net

인 교류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 使僧 冊中, 安心東堂과의 교류 양상에 연구의 포커스를 맞추었다. 『중종실록』에서 역사적 기록을 추출하고, 『모재집』 수록 작품들을 통해서 구체적 양상을 밝히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김안국의 대일인식이 개방적이고 우호적이었음을 밝혀내고, 이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華夷論에 입각해서 일본을 夷로 파악하던 당시 문사들의 일반적 대일인식과는 구별점을 가지는 것이기에 그 연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 전기의 문사인 김안국의 일본인식을 살펴봄에 있어서 김안국의 문집이나 실록의 자료만을 참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안타깝다. 조선 전기 문인들과의 문학교류 양상이 드러나 있는 다양한 문학작품이 일본에서도 발굴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김안국, 모재, 일본, 대일인식

## I. 서론

조선과 일본간의 문화적 교류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로 인한 성과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연구대상이 임진왜란 이후 1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조선통신사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서 조선 전기에 이루어진 대일 교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서는 대일 교류 현황을 살필 수 있는 현전하는 조선전기 자료의 부족을 우선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통신 사행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번다한 문화 교류 양상들이 많은 연구의 단초를 제공해 주었음 또한 양적 편향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선 전기 대일 교류-특히 문학 교류-에 관한 연구가 전연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sup>1)</sup>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연구 성과는 태조 원년에서 선조 32년까지 약 69회에 걸쳐 사신이 일본에 파견되었고, 그

보다 훨씬 많은 일본측 인사가 내빙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조선전기는 대일 교류 연구에 있어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별히 조선에 사행한 일본국왕사나 使僧들을 접대한 조선의 인물들은 모두 학식과 문재를 겸비한 학자, 문장가였으니 이들의 문집에 남아있는 대일 문학 교류 양상을 추출해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조선통신사들의 문학작품이 일본에 직접 가서 그곳에서 본 경물, 의복, 풍속으로 창화하고 吟詠한 것인 반면, 임난 전에 지어진 양국 사이의 문화적 교류의 산물들은 조선에 있으면서 일본에 대해 듣거나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지은 것이다.<sup>2)</sup> 본고는 중종조에 선위사로 활동했던 모재 김안국의 대일인식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안국 역시 일본에 직접 방문한 적은 없지만 내빙하는 사신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당시 조선에서 일본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따라서 김안국의 대일인식을 살펴보는 작업은 한 개인의 대일 교류 및 사신과의 교류 활동상을 밝히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김안국은 일본 여러 使僧의 접대를 담당하였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지속적인 교류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 使僧 弼中, 安心東堂과의 교류 양상에 연구의 포커스를 맞추려고 한다. 『중종실록』에서 역사적 기록을 추출하고, 『모재집』 수록 작품들을 통해서 구체적 양상을 밝히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김안국의 대일인식이 개방적이고 우호적이었음을 밝혀내고, 이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華夷論에 입각해서 일본을 夷로 파악하던 당시 문사들의 일반적 대일인식과는 구별점을 가지는 것

1) 이채연, 「朝鮮前期 對日 使行文學에 나타난 日本認識」, 『韓國文學論叢』 18집, 한국문화회, 1996.; 김강식, 「16세기 후반의 對日 인식과 정치사적 의미」, 『역사와 경계』 43집, 부산경남사학회, 2002.; 임채명, 「朝鮮 文士들의 詩文에 나타난 日本 認識과 交流 樣相 -주요 壬亂 前까지의 對日 關係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23집, 근역한문학회, 2005.; 이종목·桑鳴里枝訊, 「朝鮮前期韓日文士の文學交流の樣相について」

2) 임채명, 위의 논문, p.7.

이기에 그 연구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조선 전기의 문사인 김안국의 일본인식을 살펴봄에 있어서 김안국의 문집이나 실록의 자료만을 참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안타깝다. 일본측 문헌들이 많이 발굴되어서 김안국과 교유한 당시 사신들의 여러 詩作 및 서신들을 보충할 수 있다면 당시 교류 상황과 모재의 대일인식의 면모가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조선 전기 문인들과의 문학교류 양상이 드러나 있는 다양한 문학작품이 일본에서도 발굴되기를 기대해 본다.

## II. 모재의 우호적 대일 인식

조선은 명나라의 중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수용하면서 중국과는 사대의 관계를, 일본과는 교린의 관계를 맺었다.<sup>3)</sup> 그러나 일본과의 교린은 표면적으로는 대등교린이었지만 당시 문사들은 전통적인 화이관에 입각하여 일본을 바라보았고, 이에 따라 일본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전기 문사의 기록에는 일본을 중국의 후예들이 정착한 나라라고 보는 중국도래설과 일본 토착민들의 나라라고 보는 토착기원설이 혼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풍속을 소개하는 데에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중국도래설로 보는 시각에서는 일본의 풍속을 義와 禮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반면, 토착기원설에 입각한 서술에서는 그들은 습성이 강하고 사납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도 당시 문사들의 대일인식이 화이관에 입각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4)</sup>

모재 김안국은 조선전기 대부분의 문사들이 일본에 대해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교화시켜야 할 오랑캐의 나라라고 인식하

3) 이채연, 앞의 논문, p.24.

4) 임채명, 앞의 논문, p.12. 참조.

였던 것에 비해 대등한 관계에 있는 이웃 나라로 인식하였다. 그는 선입견에 따라 일본에 대해 폄하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던 조선의 문사들을 경계하면서 상호간 우호적인 입장에서 교린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일본에 대하여 합당한 예를 갖추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1) 이제 서장을 보면, 安心東堂 등은 성질이 조급하다고는 하나, 하는 일이 다 조용하고 공순하며 생각이 매우 깊은 자인데, 대접함이 이와 같으니 예로 교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저들이 어찌 이웃 나라의 信使를 인테 대접하면서 너, 너라고 하는가? 심하여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천자가 藩國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는데, 더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北面하여 事大하는 것인데도 업신여기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서울 사람은 倭奴라고도 부르고 오랑캐라고도 부르는데, 만약 말하는 사이에 이것을 듣게 된다면 원망하여 성냄이 반드시 심할 것입니다.<sup>5)</sup>

(2) 예악문물이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중원을 통역하여 正朔을 같이 받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封王입니다. 후하게 대우함이 마땅한데 어떻게 倭奴라고 지목할 수 있겠습니까? 또 듣건대, 임역령이 객사에게 말하기를 ‘事大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였다 합니다. 이 말은 입 밖에 낼 수 없는 것인데도 태연히 말하였으니, 일의 체모를 손상시킨 것이 매우 큼니다.<sup>6)</sup>

중종37년(1542) 4월, 일본의 使僧 安心東堂은 조선에서 무역을 금하고 있던 품목인 白銀을 8만냥을 가지고 내빙하는데, 이로 인해 양국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게 된다. 이 백은은 조선에서도 산출되는 것이었고, 또

- 
- 5) 『中宗實錄』, <中宗 37年 5月 15日>, “安國曰, ‘今見書狀, 安心東堂等, 雖云性躁, 處置之事, 皆合從容遜順, 深有計慮者, 而待之如此, 其可謂以禮交隣乎? 今者人皆曰, ‘彼何能爲隣國信使, 待以爾汝? 甚無謂也.’ 天子於藩國, 猶不若此, 況我國與日本, 俱北面事大, 而慢易若此. 京師之人, 或曰倭奴或曰夷虜, 彼若言語之間, 如得聞之, 則其憾恚必深.’”
- 6) 『中宗實錄』, <中宗 37年 5月 15日>, “安國曰, ‘禮樂文物, 雖不及於我國, 然通譯中原, 同稟正朔, 與我國一樣封王也. 所當厚待, 豈可以倭奴目之乎? 且聞林億齡, 與客使言曰, ‘事大何以如此云. 此言不可開口, 而安然發說, 其爲虧損事體, 甚大矣.’”

백성들의 의식주에 관계되는 생필품이 아니라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무역을 개방할 경우 여러 가지 폐단이 예상되는 바 국가 차원에서 무역을 금지시킨 터였다. 따라서 무역 금지 품목인 은을 제외한 필요 물품들만 교역하겠다고 주장하는 조선과, 은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다른 물품들도 모두 가지고 되돌아가겠다는 일본 측이 팽팽히 맞서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의 문신들도 이 은 무역 문제를 두고 극명한 찬반론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안국은 보내온 호의를 생각해서 가져온 은의 일부라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위의 두 글은 그 과정에서 김안국이 자신의 생각을 언급한 것인데, 일본에 대한 대등적 시각이 현저하게 나타나 있다.

윗 글을 통해 김안국은 일본을 조선과 대등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낸다. (1)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北面하여 중국을 事大하고 있는 동일한 신하의 나라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고, (2)에서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중국에서 正朔을 받는 같은 처지의 封國인데 그들을 홀대해서는 안됨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화이관에 입각하여 일본을 무조건적으로 낮추어 보던 당시의 통념에 비판의 시각을 표출한다. (1), (2)를 통해서 일본 사신에게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들을 오랑캐라고 호칭하는 것, 공공연하게 일본이 조선을 事大한다고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시키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 은근히 무시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던 실정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가 상호 교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가의 체모도 손상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조선과 대등한 나라로 인정하고 있었던 모재의 대일인식의 일단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양국 간의 상호 교역에 있어서 불필요한 잡음은 백해무익임을 강조하는 김안국의 투철한 관료의식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당대인과 달리 객관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에서 일본을 인정하였던 김안국은 이로 인해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된다. 다음에서 인용한 실록의 사실편은 당시 대일관계에 있어서 김안국이 취했던 태도가 어떻게 평가받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1) 김안국은 나라의 일에 정성을 다하니 어진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왜인을 후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이 한 가지 논의는 매우 옳지 않다. 한정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쓸모없는 물건을 바꾸는 것은 결코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절약하는 도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청하는 일을 날날이 늘어주어서 교만한 버릇을 길러냈으니 원대한 식견이 있는 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sup>7)</sup>

(2) 예조판서 김안국은 倭使를 후하게 대접하고자 하여 (사신이) 이르기 전에 대신들로 하여금 은을 무역하는 일의 가부를 의논하도록 청하였다. 이미 무역하기로 되자 곧 또다시 무역할 수량을 정할 것을 청하였다. 조정의 의논이 순조롭지 않으면 通事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후대하는 뜻을 말하여 통사가 왜사에게 전달하니 왜사가 조정의 뜻을 다 알게 되어 교만함이 날로 심해졌다.<sup>8)</sup>

일본의 호의를 생각해서 은의 통상을 일부라도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김안국은 위와 같은 혹독한 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실록 전반에서 김안국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언급은 상대적으로 매우 비판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그의 일본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당대에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김안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가졌던 일본 使僧 彌中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김안국의 우호적 대일인식을 다시 한 번 환기할 수 있게 된다. 김안국은 回國하는 彌中을 송별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짓고 있다.

7) 『中宗實錄』, <中宗 37年 5月 15日>, “……金安國盡誠國事, 可謂賢者矣. 而厚待倭人此一論, 甚爲不可. 以有限之財, 換無用之物, 已非爲國節財之道. 而所請之事, 一一許從, 以長其驕慢之習, 有遠識者, 甚憂之.”

8) 『中宗實錄』, <中宗 37年 7月 17日>, “史臣曰, ‘禮曹判書金安國欲厚待倭使, 未至, 請令大臣, 議其買銀當否. 既許買, 則又請定所買之數. 廷議不從, 則通事之見, 必言厚待之意, 通事傳通倭使, 盡知廷意, 驕傲日甚. ……’”

縹緲雲帆向日東	아득한 구름 배는 동쪽으로 가는데
海天無際起悲風	海天에는 끝도 없이 스산한 바람일겠지
千年曲裏無鍾子	천년동안 곡조 속엔 종자기가 없겠고
三笑溪邊憶遠公	三笑의 시냇가엔 遠公 생각나리라
酒爲排愁偏取醉	시름 더는 술이라서 마냥 흠뻑 취해보고
詩因恨別覺難工	이별 한에 서러운 詩 공교롭기 어렵도다
他時最是相思處	이날 이후 떠나가서 그대 가장 그리운건
月白中秋夜枕空	달 휘영청 밝은 가을 홀로 베개 벨 때겠지 <sup>9)</sup>

김안국은 봉중과 이별하면서 7언율시 1수와 7언절구시 4수를 남기고 있는데, 위의 시는 그 첫번째 시이다. 首聯에서는 험한 바닷길을 헤치면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봉중 일행을 생각하고 있다. 이제 봉중이 돌아가고 나면 두 사람 사이는 바다로 막히게 될 터이니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기 어려운 것이다. 頷聯에서 김안국은 봉중을 鍾子期和 惠遠禪師에 비하고 있다. 자신의 뜻을 이해하고, 속마음을 터 놓을 수 있는 知音으로 봉중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봉중을 종자기에 비유한 것은 봉중과의 酒宴에서 종종 거문고 연주를 즐기면서 시를 지었기에 이와 같이 언급한 것으로 생각된다.<sup>10)</sup> 頸聯에서는 이별의 아쉬움을 언급하고 있다. 시름을 덜기 위해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는데, 그동안 수없이 唱和했던 시들도 이 날만큼은 이별의 아쉬움 때문에 쉽게 지어지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尾聯에서는 봉중이 떠나간 후에도 봉중과의 추억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細注로 “일찍이 스님과 추석 달을 감상하였다.[曾與師賞中秋月]”고 되어있으니 봉중과 구경했던 밝은 달이 뜰 때 가장 생각날 것이라고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위의 시에서 김안국은 봉중을 상대국의 사신이라기보다는 절친한 친

9) 金安國, 『慕齋集』(『韓國文集叢刊』 20,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卷1, p.18. 「送別日本僧弻中等」其一.

10) 金安國, 『慕齋集』 卷3, p.51. 「與弻中上人飲且彈琴」, 「次弻中上人聽琴韻」을 통해 이러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의 저변에는 봉중에 대한 인정, 더 나아가 일본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그렇다면 봉중은 김안국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었을까? 전해지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역시 김안국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었는데, 다음의 기록을 통해 김안국에 대한 봉중의 시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일본 사신 弼中이 왔을 적에 안국을 선위사로 삼았었는데, 안국이 인정을 다해 접대하고 창수를 익숙하고 민첩하게 하므로, 봉중이 존경하고 감복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감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두 차례 중국에 조회하였고, 두 차례 琉球에 방문하였고 세 차례 귀국에 이르렀다. 만난 사람이 많았지만, 공[김안국]과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하였다. 돌아갈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로부터 일본 사신이 오면 반드시 김안국의 안부를 물었다.<sup>11)</sup>

김안국을 인종의 묘정에 배향하면서 실록에 기재한 내용이다. 김안국에 대해 봉중의 평가가 드러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에 주목을 요한다. 중국에 두 차례 방문 경험이 있는 봉중이 그곳에서도 김안국 같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니, 그의 김안국에 대한 존경을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김안국과 봉중은 선위사와 사신의 공적 관계를 넘어 서서 사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조선에 대한 권위자로 손꼽히던 봉중의 김안국에 대한 인정은 일본이라는 나라로부터의 인정을 의미하기도 했다. 따라서 봉중 이후에 조선을 방문하는 사신들도 김안국의 안부를 묻는 것이 관례가 되었으며, 김안국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일본에서 의례적으로 조문을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예조가 아뢰기를 “일본 사신 安心東堂이 그 국왕의 뜻으로 말하기를 ‘김안국

11) 『明宗實錄』, <明宗 9年 9月 15日>, “日本使臣弼中來, 以安國爲宣慰使, 安國接遇盡情, 唱酬工敏, 中敬服不已. 歎曰, ‘中再朝中朝, 兩聘琉球, 三至貴國. 見人多矣, 未嘗見如公者.’ 歸時至於涕泣相別, 自是倭使至, 必問安國安否.”

이 우리나라에 진심을 다해 주었는데, 이제 죽었다고 들으니 슬픔을 견딜 수 없다. 조문을 하고자 하여 제사용품을 가지고 왔는데, 청해도 되겠는가?’ 하였다. 本曹가 그것을 제지하여 말하기를 ‘비록 국왕의 명으로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私祭이다. 제사는 진실로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倭使가 말하기를 ‘제사는 이미 지낼 수 없다고 하니 그 집에 물건을 보내주는 것도 안되겠는가?’라고 하고는 향 두 근과 후추 백 근을 보이며 전해 달라고 재촉하였다.<sup>12)</sup>

윗글에서 일본이 ‘김안국이 우리나라[일본]에 진심을 다해주었다.’라고 언급한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실록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전에 안심동당이 가져왔던 은을 김안국이 사주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와 같이 언급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sup>13)</sup> 그러나 이와 같은 언급은 비단 그 한 사건만을 지칭해서 언급한 것은 아니고, 그 동안 김안국의 지속적인 대일 교류 활동에 대한 인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Ⅲ. 모재의 우호적 대일관의 배경

김안국의 대일인식은 객관적이고 시각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우호적인 인식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의 통념적인 화이관에서 벗

12) 『仁宗實錄』, <仁宗 1年 6月 12日>, “禮曹啓曰, ‘日本使臣安心東堂, 以其國王之意言曰, ‘金安國忠於我國, 而今聞亡矣, 不勝痛悼. 將欲致祭, 爲持祭具來, 其可得請耶?’ 本曹止之曰, ‘雖以國王之命欲設祭行之, 是亦私祭. 祭固不可私也.’云爾. 則倭使曰, ‘祭則既不可得行矣, 又不可有贈物於其家乎?’ 仍出示燒香二斤 胡椒百斤, 促令傳付.’……”

13) 『仁宗實錄』, <仁宗 1年 6月 12日>, “辛丑年[중종 36년]에 안심 동당이 은전을 많이 가져 왔는데, 조정이 그 매매를 허가하지 않았으나, 김안국만이 넉넉한 값으로 사 주어야 한다고 그 의논을 힘껏 주장하였다. 일본이 김안국이 우리나라에 진심을 다해주었다고 한 것은 아마도 이 일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辛丑年, 安心東堂多齋銀錢來, 朝廷不欲許其買賣, 獨安國以爲當優價許買, 力主其議. 日本以安國爲有忠於我國云者, 想或指此事也.)”

어나 이와 같은 인식을 가능하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의 사대교린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 사신과의 인간적 교류 양상 등을 그 배경 요소로 파악할 수 있겠다.

### 1. 사대 교린의 중요성 인식

김안국은 그의 문집에 表箋 36편, 奏 2편, 敎書·諭書·傳旨·書 11편, 疏狀 4편, 議 18편, 書契 9편 등 문장력을 요구하는 公利的 글을 여러 편 남겼는데<sup>14)</sup>, 문장의 효용성을 인정하는 그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李睟光은 『芝峰類說』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김안국은) 매번 事大하는 表文을 찬술할 때엔 혼자 있으면서 구상하고 생각하여 좋은 글귀 하나를 얻게 되면 비록 밤중이라도 문득 일어나서 창문이나 벽을 손으로 두드리며 좋아서 뛰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뒤에 병든 가운데 표문을 지어내느라고 마음을 지나치게 써서 드디어 기력을 잃고 그대로 죽었다고 한다. 아야! 글이라는 것은 뜻을 전달할 수 있으면 그만인데, 생명을 손상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또한 지나친 것이다.<sup>15)</sup>

이수광은 이 글을 통해 외교문은 의미만 전달하면 되는데 김안국이 말의 정교함까지 신경을 쓰다가 결국 건강을 해쳤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평가는 물론 비판적 어조를 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김안국이 사대표문과 교린서찰을 쓰는 데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가늠하게 하는 자료가 된다.

안국은 천품이 강직하고 학문이 해박하여 典故를 환히 알고 時務에 익숙히

14) 金鍾振, 「16世紀 士林派 文學의 研究 -己卯士林을 중심으로-」,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29.

15) 李睟光, 『芝峰類說』 卷8, “…… 每撰事大表文, 獨處構思, 得一好句, 則雖夜輒起, 手敲窓壁, 踊躍不已. 後於病中撰出表文, 過用心氣, 遂漸頓以卒云. 噫! 辭足以達意而已, 至於傷生亦過矣.”

달통하였으며, 성격이 치밀하고 주도하여 일에 빈틈이 없었다. 또 山經·地誌·幽編·秘錄·陰陽·醫·佛의 책까지도 그 이치를 깊이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한 때의 事大表奏와 交隣書札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sup>16)</sup>

김안국의 외교 문서 작성에 대한 당시의 인정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그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깊이 있게 공부하였으니, 이러한 그의 사고방식은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으로 확장되어 갔던 듯하다. 그리하여 당시에 외교문은 내용 전달만 하면 그만이라는 통념을 깨고 그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더 나아가 외교 업무 수행차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도 깊이 있는 교류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1) 이전의 승문원은 事大交隣의 문서를 여사로 보고 부지런히 익히지 않았다. 김안국이 判校가 되어서는 소속 관리들을 앞장서서 거느리고 비록 몹시 추운 때나 더운 때라도 일과를 조금도 폐한 일이 없었다. 그가 부지런히 삼가면서 직무에 임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sup>17)</sup>

(2) 김안국이 文衡을 맡았을 때에는 모든 表箋과 辭命에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므로 중국 사람이 그를 보고 탄복하면서 東國에도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는 데에 이르렀다.<sup>18)</sup>

위의 글들은 김안국이 외교 문서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그의 태도가 중국에서까지도 인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게 한

- 
- 16) 『中宗實錄』, <中宗 33年 7月 25日>, “…… 安國天資剛毅, 學問精博, 曉暢典故, 練達時務, 綜綴周密, 於事無所遺. 至於山經 地誌 幽編 秘錄 陰陽 醫 佛之書, 無不究極其理. 一時事大表奏交隣書札, 皆出其手……”
- 17) 『中宗實錄』, <中宗 10年 6月 8日>, “……先是, 承文院, 事大交隣文書, 視爲餘事, 不勤隸習. 安國爲判校, 倡率僚屬, 雖隆寒盛暑, 未嘗少廢日課. 其勤謹位職類此……”
- 18) 『仁宗實錄』, <仁宗 1年 3月 3日>, “…… 金安國典文衡, 凡表箋辭命, 未嘗不刻意致精, 華人見之歎服, 至有東國有人之語……”

다. 그는 매사에 치밀한 성격으로 중국·일본 인사들을 만날 때에 미비한 점이 있을까 걱정하였다. 자신이 漢語를 모르기 때문에 역관에 의지하여 외교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 생기는 통역 상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근심하였고<sup>19)</sup>, 일본 사승을 대함에 있어서도 매사를 꼼꼼하게 점검하였다.

사대와 교린은 매우 중대하여, 일의 기틀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이해에 크게 관계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만 못하기는 하나, 君臣의 上下와 百官의 예의가 또한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천성이 조급하여 조금만 그 마음에 섭섭하면 문득 분노를 일으킵니다. 일본은 멀어서 예전부터 본래 우리나라에서 난을 일으켰음을 들은 적이 없고, 늘 교린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내빙합니다. 바다로 멀리 막혀 있으니 사신을 보내어 답례하지는 못하더라도 10년이나 5년에 한 번 내빙하면 우리는 접대를 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sup>20)</sup>

사대와 교린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됨을 역설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온 나라이니 그들에 대한 접대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의 사신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들을 倭奴로 공공연히 호칭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듯하다. 김안국은 당시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 없이 그들을 夷狄으로 규정짓고 깔보는 태도는 보이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그들이 비록 조선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들의 나라에도 엄연히 君臣 百官의 예가 갖추어져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관점을 견지한다면 國益에 결코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조선이라는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주변 나라들의 정세를 면

19) 『中宗實錄』, <中宗 37年 4月 1日>; <中宗 37年 8月 1日> 참조.

20) 『中宗實錄』, <中宗 37年 5月 15日>, “金安國曰, ‘事大交隣, 至爲重大. 小失事機, 大關利害. 日本雖不如我國, 君臣上下, 百官禮義, 亦皆有之. 但天性躁急, 小失其心, 便生忿恚. 日本遐遠, 自古雖未聞作耗我國之事, 常以隣好, 來聘我國. 雖以滄溟隔遠, 不遣使修答, 十年五年, 若一來聘, 則我之接待, 所當厚矣……’”

밀히 이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유지해야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이러한 그의 인식이 기반이 되어 그가 사대표문이나 교린 사찰 작성에 각고의 노력을 하게 되었고, 업무상 마주치게 되는 외국 인사들과의 교류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 2. 일본 사승과의 인간적 교류

조선에 내빙했던 使僧들은 시문에 유능하였으며, 시를 감상하는 안목 또한 상당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었다. 일본은 가마쿠라[鎌倉] 시대부터 五山十刹이 연이어 건립되어 선종이 점차 융성하게 되었다. 당시의 승려는 四民 이외에 별도로 한 계층을 이루어, 王侯將相의 사이에 나름대로 노닐면서 文教를 고취하였다. 따라서 臺閣이 담당했던 문장은 완전히 승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sup>21)</sup>

일본 내에서 조선통으로 인정받아서 종종 6년에서 7년 사이에 수차례 조선을 방문하였던 弼中은 재능이 풍부하고 영리하며 다양한 문장을 섭렵한 사람이었다.<sup>22)</sup> 김안국과 봉중과의 첫 만남은 종종 6년 김안국이 선위사 업무를 맡으면서 이루어졌다. 처음 봉중을 대면했을 때 김안국에게는 일본 사신과의 외교에 있어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전부였다.

조선에 방문한 일본의 사신들이 먼저 시를 짓는 예는 많지 않았는데, 弼中만은 자신의 시재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하고 있었으므로 매사에 먼저 시를 지어서 상대와 겨루려고 하였다.<sup>23)</sup> 봉중은 김안국에게 다양한

21) 猪口篤志 著, 沈慶昊·韓睿嫻 共譯, 『日本漢文學史』, 소명출판, 2000. p.221. 참조.

22) 『中宗實錄』, <中宗 7년 5월 30일> 시독관 홍언필이 봉중의 인물됨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臣前年往見弼中, 其爲人多能巧(惠)慧, 博覽諸書……”

23) 이종목외, 앞의 논문, pp.142-143. “日本の使臣達が先に詩を作ったという例は多くないが、弼中は 自分の詩才を自負していたため、事あるごとに果敢に先ず詩を作り張り合おうとしたのである。”

시험을 통해서 그의 시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하고 싶어했다.

봉중이 시상이 고갈되어서 적수가 못되므로, 強韻으로 시험하여 곤란을 주고자 하였다. 讀易[주역을 읽다]으로 제목을 삼고, 운자 鹽·尖·鎌을 즉흥적으로 불렀다. 공[김안국]은 운자 에 응대하여 대답하기를, “大羹에는 원래부터 매실 소금 안 넣나니, 지극한 도 붓이나 혀론 형용하기 어렵다네. 고요 속에 가만히 消長 이치 살피나니, 달 등글기 거울 모양 되었다가 낮 모양 되네.”라고 하였다. 봉중이 무릎을 치면서 탄복하였다.<sup>24)</sup>

봉중이 위와 같이 險韻으로 김안국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했다면, 김안국 역시 자신의 시를 봉중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고자 했다. 『모재집』에는 六言絶句 2수와 雜體詩 3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두 수가 봉중과의 교류를 통해 지어진 시이다.<sup>25)</sup> 이를 통해서 김안국 역시 독특한 한시를 지어서 봉중의 詩才를 은근하게 시험하였으며, 동시에 일본에서 文名이 높다는 봉중과의 자존심 대결에서 밀리지 않고 싶어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과 일본의 문명 높은 두 문사들은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공적인 교류 이외에 인간적으로 서로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 후 봉중이 내빙했을 때, 선위사를 김안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 부분이나 일본에 귀국한 후에도 그의 안부를 물어왔던 점<sup>26)</sup> 등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김안국과 봉중과의 교류를 엿볼 수 있는 『모재집』 수록 시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모재집』에는 봉중과 관련된 시 15제가 보이고, 答書 두 편이 실려있다.

24) 『大東野乘』, 「己卯錄補遺」 上卷, 「金安國傳」, “弼中思涸不敵, 欲試強韻而窮之. 以讀易爲題, 輒呼鹽尖鎌. 公應聲而對曰, ‘大羹元不和梅鹽, 至道難形筆舌尖. 靜裡默觀消長理, 月圓如鏡又如鎌.’ 弼中擊節嘆服.”

25) 金安國, 『慕齋集』 卷1, p.16. 「六言絶句, 侑弼中等酒」; 「藏頭體贈弼中等」

26) 『慕齋集』에는 봉중이 일본에 돌아간 후에 보내 온 편지에 답한 글과, 그가 보내온 시에 답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開抱談論借酒觴	톡 터놓고 얘기하려 술자리를 빌렸으니
十年茅塞盡鋤荒	십년간의 막혔던 것 모두 다 걷히도다
初疑角逐楚漢鹿	처음엔 제각기 楚·漢 사슴 쫓듯하다
轉覺俱忘藏穀羊	짐차로 藏穀이 양 잃은 것 같이 됐네
法界神清風作馭	法界의 정신 맑아 바람도 부리는 듯
塵機念絕雪消湯	속세 욕심 끊어져서 눈이 녹듯 하는구나
稽首吾師煩指教	머리 숙여 스님의 가르침을 받겠나니
如何始脫死生場	어찌하면 死生 공간 초탈할 수 있을런지 <sup>27)</sup>

이 시는 중종7년(1512) 5월 봉중이 조선을 내빙했을 때, 다시 선위사로 임명된 김안국이 그와 재만남을 갖게 되면서 지은 시로 보인다. 首聯에서는 그와 다시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니 그동안 막혀 있던 답답함이 한 순간에 견힘을 말하고 있다. 전년도 그와 헤어질 때에 다시 만남을 기약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었기에 다시금 이렇게 만난 것에 대한 반가움이 배가 되는 것이다. 頤聯에서는 그와의 만남을 지속해 가면서 생긴 김안국의 심리상태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처음 봉중과 만났을 때에는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詩才를 뽐내고 상대를 시험했었다. 그러나 만남이 지속될수록 그런 실랑이는 사라지고 知音으로서 서로 허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頸聯에서는 봉중의 인간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속세의 모든 잡념을 초탈한 듯한 그의 인품에 김안국도 감화되었던 것이다. 尾聯에서는 그러한 봉중과의 교유를 통해 높은 경지의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는 소망을 적고 있다. 김안국과 봉중이라는 두 사람과의 교유는 이미 선위사와 사신이라는 형식적 만남의 틀을 깨고 있었으며, 儒者와 佛子라는 사상적인 제약도 넘어서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봉중은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도 김안국을 염려하여 간간히 소식을 전해왔는데 그가 보낸 약을 사양하면서 김안국이 쓴 시가 남아있다.

煩惱人間苦    인간의 번뇌만도 괴로운건데

27) 金安國, 『慕齋集』 卷3, p.50. 「次日本弻中上人韻」

兼因熱惱侵	아울러 열병까지 오른대서야
常移腰上帶	벼슬길을 이리저리 옮기다보니
久廢枕邊琴	베개 옆 거문고도 오래 못 탔네
調攝何關術	몸조리에 무슨 방도 소용 있겠나
功夫只在心	공부는 마음에만 있는 것인데
安閑方合劑	편함으론 알맞은 조제법 삼고
清淨待深鍼	맑음으론 침 맞는 것 대신하려네
欲鍊眞丹汞	참다운 영약을 얻고자하면
須投舊笏簪	모름지기 옛 홀일랑 던져야 하네
願隨飛去錫	원컨대 날아가는 錫杖을 따라
永散鬱溼襟	오래도록 답답한 맘 풀어봤으면
塵土非吾戀	속세는 내가 사모하지 않으니
仙區仗子尋	신선 땅 그대 덕에 찾아보고파
殷勤謝禪客	은근하게 禪客에게 사절하노니
藥力詎能任	약 기운이 무슨 구실할 수 있겠나 <sup>28)</sup>

이 시를 통해 일본에 있는 붕중이 김안국의 건강을 염려하여 약을 보내왔음을 알 수 있다. 김안국은 사양하는 시를 보내면서 동시에 붕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함께 담고 있다. 특히 11에서 14구에서는 붕중을 따라서 유람하면서 속세를 떠나 지내고 싶다는 속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김안국은 이 시에서 자신이 있는 세상을 ‘塵土’로, 붕중이 속해 있는 세상을 ‘仙區’로 표현하고 있다. 이종묵은 그의 논문에서 시의 이 시를 지목하여 “병을 고치는 것은 마음이지 약이 아니니, 마음의 답답함을 신선의 나라 일본으로의 여행을 통해서 풀고 싶다는 소원을 그의 시 안에서 말하였다.”<sup>29)</sup>라고 하였다. 시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仙區’가 구체적으로 ‘일본’을 지칭하는 것인지 탈속적인 세계 전반을 아울러서 표현한 것인지

28) 金安國, 『慕齋集』 卷3, p.54. 「走筆, 謝却叻中惠藥」

29) 이종묵외, p.142. “病を治すのは心であり薬ではないとし、心の重苦しさを神仙の國日本への旅を通してほぐすことが出来たらいいのに、という願いをその詩の中で語った。”

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김안국의 봉중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을 엿보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실록을 통해서 살펴보면 김안국은 봉중과 두 차례 만났는데,<sup>30)</sup> 그 이후에도 조선을 방문하는 일본 使僧들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주고 받았던 것 같다. 이러한 교류는 봉중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게 된다. 다음은 중종 37년(1542) 安心東堂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그에게 준 시이다. 시에 첨기되어 있는 細注가 정황을 한 층 잘 알게 해주기에 함께 인용하였다.

나는 옛날에 선위사가 되어서 일본의 使僧 冊中을 접대했었다. 安心은 스스로 冊中の 法孫이라고 말하였다. 冊中을 접대할 때에 함께 中秋月을 감상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창화가 이루어졌다. 冊中은 입적한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한다.

余舊爲宣慰使，接日本使僧冊中。安心自說冊中法孫。接冊中時，曾共賞中秋月，多有唱和。冊中師示寂已久。

多生應結日本緣	오래 살면 일본 인연 이어질 줄 알았는데
祖逝孫來偈又傳	祖는 죽고 孫이 와서 불가 시구 또 전하네
四大本知都是妄	四大 모두 허망한 것 본래부터 알았는데
存亡唯記月懸天	存亡간엔 오로지 하늘달만 기억되리 <sup>31)</sup>

安心東堂을 통해서 봉중의 죽음을 들은 김안국의 그리움을 살펴볼 수 있다. 바닷길로 막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언제 또 만날 날이 있을까 기대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法孫인 安心이 와서 그의 입적을 확실하게 알려준 것이다. 만물을 구성하는 四大가 본래부터 허망한 것이니 죽은 자에게도 산 자에게도 추석날 달밤 노닐던 기억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30) 中宗 6년 8월, 中宗 7년 5월에 봉중이 내병했을 때, 김안국이 선위사를 담당했다.

31) 金安國, 『慕齋集』 卷3, p.63. 「贈日本國使安心東堂」

이상을 통해서 김안국이 일본에서 대표적인 조선통으로 인정받고 있던 使僧인 봉중과의 만남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갔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인간적인 교유 양상은 일본 내에서 그에 대한 인정을 불러왔고, 결국 30년 후 조선을 방문했던 安心 東堂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모재집』에는 安心과 창화한 시 작품도 6수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김안국이 安心과 창화한 시는 冊中에 비해서는 인간적 교유 양상보다는 외교적 수단으로서의 작시 활동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이유로는 당시 안심이 은 무역과 관련해 조정의 찬반론을 불러 일으켰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는 인물이었다는 점과 당시 김안국은 이미 조정의 원로로 그와 교유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 것을 꼽을 수 있다.

김안국의 생애를 고찰해보면 그는 한 번도 일본에 직접 방문한 적은 없다. 그러한 그가 일본에 정통하다고 인정받아서 선위사에 지속적으로 임명되었던 것을 보면<sup>32)</sup>, 그는 외교 업무차 만나게 되는 인물들과의 교유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견문을 넓혔던 것으로 생각된다.

선위사 김안국이 봉중을 전송하고 돌아와서 일본의 군현·지명·관제를 배긴 첩자 1책을 바치니, ‘승문원에 내려 주라.’고 명하였다.<sup>33)</sup>

위의 내용을 통해 김안국은 使僧과의 만남을 통해 일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였고, 그것을 통해 일본이라는 나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니게 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2) 『中宗實錄』, <中宗 7年 4月 28日>, “大司憲 尹金孫이 또 아뢰기를, ‘金安國을 다시 선위사로 보내시면 冊中이 우리 조정에 사람이 없다고 여길까 염려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始末을 아는 자가 金安國이기 때문에 대신들이 보낼 만하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大司憲尹金孫又啓曰, ‘金安國, 又以宣慰使差遣, 恐冊中以朝廷爲無人也.’ 上曰, ‘知首末者安國, 故大臣以爲可遣也.’]”

33) 『中宗實錄』, <中宗 6年 10月 28日>, “宣慰使金安國, 送冊中還, 仍進日本郡縣地名官制帖草一冊, 命下承文院.”

#### IV. 결론

본고는 오늘날 對日 交流와 관련해 활발한 학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의 불모지로서 자리하고 있는 조선전기 대일인식의 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연구의 대상을 당시 조정에서 일본통으로 인식되었던 모재 김안국으로 하여 실록의 기록과 그의 문집 내의 작품들을 통하여 대일인식의 일단면을 살펴보았다.

우선, 당시의 조선의 문사들은 화이관에 입각하여 일본을 은근히 홀대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던 데에 반해 일본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평등한 대외 교린을 추진하였던 김안국의 대일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가능했던 배경을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우선, 김안국이 사대 교린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는 당시 내용만 전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되었던 외교문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그 사이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 중국과 일본의 사신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도 예의를 다할 것을 늘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태도로 보아 그가 외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그의 인식이 결국 일본에 대해서도 상호간 우호적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弼中으로 대표되는 당시 일본使僧과의 인간적 교류를 들 수 있다. 김안국은 중종 6년에 처음 弼中을 맞이하는 선위사로 임명된 뒤 그와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태도는 弼中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안국은 弼中과의 교류를 통해 일본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弼中의 영향권에 있던 이후 使僧들도 김안국에 대해서 예의를 다했으니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 일본에 대한 우호적 시각을 견지했던 문사가 비단 김안국 한 명만은 아닐 것이다. 당시 은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만 살펴보다도 김안국 개인의 힘으로만 해결하기에는 국가의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일본을 객관적이고 우호적으로 바라보았던 일군의 문사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조선전기 대일 인식관을 살펴보는 데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參考 文獻>

- 金安國, 『慕齋集』, 『韓國文集叢刊』 20,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李晬光, 『芝峰類說』  
 국역 『大東野乘』 III, 민족문화추진회, 1985.  
 『中宗實錄』  
 『仁宗實錄』  
 『明宗實錄』
- 김강식, 「16세기 후반의 對日 인식과 정치사적 의미」, 『역사와 경계』 43집, 부산경남사학회, 2002.  
 金鍾振, 「16世紀 士林派 文學의 研究 -己卯士林을 중심으로-」,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이채언, 「朝鮮前期 對日 使行文學에 나타난 日本認識」, 『韓國文學論叢』 18집, 한국문화회, 1996.  
 임채명, 「朝鮮 文士들의 詩文에 나타난 日本 認識과 交流 樣相 -주로 壬亂 前까지의 對日 關係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23집, 근역한문학회, 2005.  
 猪口篤志 著, 沈慶昊·韓睿嫻 共譯, 『日本漢文學史』, 소명출판, 2000.  
 이종목·桑鳴里枝譯, 「朝鮮前期韓日文士の文學交流の樣相について」

### Abstract

*Kim Ahn-Kook(Mo-Jae)'s perception of Japan\* / Son Yoo Kyung\*\**

Diverse studies have been constantly conducted about the exchanges between Chosun and Japan since the late 1980s, making significant performances. However, the subjects of the studies are largely about Chosun delegates that visited Japan 12 times after the Korea-Japan War[壬辰倭亂], leaving a lot to be desired regarding studies on the exchanges with Japan during the early period of Chosun.

While the Chosun delegates' literary works wrote poems and left descriptions on natural scenes, costumes and customs, the products of the bilateral cultural exchanges were made by those who stayed in Chosun based on what they heard and knew about Japan.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awareness toward Japan held by Mojae[慕齋] Kim Ahn-Kook[金安國], who worked as an official meeting foreign envoys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ng[中宗]. Kim Ahn-Kook never visited Japan in person, but he was recognized as a Japan expert for his constant exchanges with Japanese envoys. Thus, a close look at Kim Ahn-Kook's awareness toward Japan is meaningful since it can shed a light on the status of an individual's exchange activities with Japan and exchanges with envoys. Kim Ahn-Kook was in charge of a lot of Japanese envoys, but this study focuses on his exchanges with Boong-Jung[弼中] and Ahn-sim-dong-dang[安心東堂] as his exchanges with them were made on a constant basis.

It is regrettable that the only available data are Kim Ahn-Kook's writings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EST) (NRF-2009-322-A00081)"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 curator98@hanmail.net

and some records found in Royal Chronicles in examining the awareness toward Japan held by Kim Ahn-Kook, a scholar in the early Chosun period. Lastly, it is expected that a variety of Japanese literary works addressing the status of literary exchanges with scholars in the early Chosun period are discovered and portrayed.

【Key words】 Kim Ahn-Kook[金安國], Mojae[慕齋], Japan, perception of Japan

투고일 : 10월 23일, 심사일 : 11월 17일, 게재확정일 : 12월 5일